

홀몸노인 복지정책 촘촘하고 실속있네

목포시가 홀몸 노인(독거노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실속 복지'시책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주요 시책은 ▲홀몸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홀몸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거동불편 홀몸노인 식사배달 ▲홀몸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홀몸노인 안부살피기 등 모두 7가지다.

**목포시 1579명 대상 주 1회 방문·2회 전화상담
응급안전 돌봄·식사 배달·안부살피기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7가지 시책 효과 '톡톡'**

목포시 대성동 주민센터 소속 복지도우미가 독거노인을 방문해 말벗을 해드리며 안부를 살피고 있다. <목포시 제공>



시는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1579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방문과 주 2회 전화상담 등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치매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홀몸노인 80세대를 대상으로 자기복구와 원격관리 기능을 갖춘 장비(케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센서를 이용해 활동 감지·화재·가스감지·응급호출 등의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응급안전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으로 구조·구급과 연계시키고 있다. 목포시

는 지난 21013년 150세대, 2014년 90세대, 2015년 86세대 등 지금까지 326세대에 게이트웨이 설치를 완료했다. 목포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홀몸노인에게 주 5회(1식 3500원) 무료급식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올해 수혜자는 519명이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150명의 홀몸노인에게 주 5회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해주는 시책도 병행하고 있다. 목포시는 특히 고독사·우울증 등 자살위험이 큰 홀몸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비롯한 건강·여가 프로그램 제

공을 통해 이들이 사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고 있다. 목포시는 또 저소득 홀몸노인에게 주 2~3회 우유나 요구르트를 배달해주는 노인안부살피기 사업을 해왔으며, 올해부터 매일(1일 1회) 방문으로 전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에 사망 후 발견되는 사례(일명 고독사)가 이어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목포시는 매일 방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도우미·장애인 행정도우미·공익근

무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복지협의체 위원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종삼 목포시 노인장애편과장은 "도심 지역에도 고령화에 따라 홀몸노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효율적 복지시책 도입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목포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시책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보육정책 든든하네

사립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처우개선·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목포시가 보육대란 우려속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든든한 보육정책을 펼쳐 보육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시비 1억1400만원을 자체 편성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포시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유지해 불만을 해소하고, 통학차량 안전운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총 190개소. 목포시는 지난 1월부터 개소 당 월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정부 지원액 수준까지 지원금을 상향시켜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매월 20만원씩 통학차량 운영비가 지원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퇴려 경영난을 부추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목포시는 또 올해 시비 3억6000만원을 투입해 보수 여건이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200여명에게 매월 3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맞벌이 부부와 근로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55개소의 시간 연장(24시까지 운영)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봄 날들이 체험에 나선 목포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두 손으로 사랑의 하트를 표현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제공하고 있다. 현재 300명의 어린이들이 이용중이다. 이와 함께 이직·건강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양도사세가 빈번(2014년 57건, 2015년 25건)하게 이뤄짐에 따라 어린이집 운

영 전반을 조연해주는 '어린이집 운영 멘토링' 사업을 추진중이다. 30명으로 구성된 멘토링단은 어린이집 운영이 미숙한 초보 원장 등을 멘토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금속공예관 신축...향토명품 키운다

이달 착공·9월 완공

목포시가 지역 내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금속공예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향토명품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역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에 목포 금속공예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옛 유달동사무소 자리에 총 사업비 4억4000만원을 들여 건립될 '목포 금속공예 명품관'은 작업장과 금속공예 체험장, 전시관 등을 갖추게 되며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 오는 9월 완공 예정이다.



목포금속공예명품관 조감도.

목포시는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향토자원인 유달산·삼학도 등을 금속공예와 접목시켜 목포만의 특색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또 일반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속공예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통 공예 전수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조부갑 목포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목포 금속공예가 현대적 감각의 전통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과 기획전

목포지역 유일한 공립미술관인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이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한 뜻깊은 전시 기획전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로 '엄마의 삶' 특별전을 개최한데 이어 올해도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6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예술의 끝없는 진화-다매체 융합'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21세기 대표 키워드이자 중심 화두인 '융합'의 시대를 맞아 다채로운 기술과 재료·사상 등이 어우러져 미술의 고유 영역을 확장시킨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특히 ▲뉴미디어&설치

아트 ▲재료·표현의 다양성 ▲일상 속 에 융화되는 예술 등 3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전시되는 게 특징이다. '뉴미디어&설치 아트'코너에서는 작가들의 선구자적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탄생된 다매체 융합된 새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 '재료·표현의 다양성'에서는 비닐수지·실·폴리우레탄·디아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합성 소재를 사용한 작품이 전시되며 재료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상범 목포시 문화예술과장은 "융합 예술의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 매체 작품을 선보인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버스정보단말기·SNS 활용 시정 홍보 눈길

목포시가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목포역·시외버스 터미널 등 57개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통해 시민이 알아야 할 유용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생활정보, 공지사항, 각종 행사안내, 관광지 소개 등으로 5분 분량이다. 시는 영상 시정뉴스를 기본 자료로 활용해 매일 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소식을 송출하고 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숙지하고, 특히 공공정보를 공유하게 돼 목포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목포시는 또 스마트 시대 소통수단인 SNS를 통해 시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SNS 소통 홍보관'을 운영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목포시 관내에 설치된 14개소의 전광판을 이용해 시의정 현황이나 생활안내, 공지사항을 현장감 있게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 초혼 | 추천회원 | 재혼 |
|--|---|--|
|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직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금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이나운사,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신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성
집중지 15,628㎡(5,167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 C 15분 / 문평, 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 24억 현지 답사 후 조정
H. 010-3119-6952